최악 무력충돌 미얀마, 비뚤어진 佛心 어쩌나

8월 25일 로힝야족-정부군 무력충돌 후 사태 악화

현재까지 약 40여 난민 발생해
국제사회 '인공청소' 규탄 심화
유엔 안보리, 9년 만 성명 발표
미얀마 정부 무책임 태도 비판



지난 8월 25일 로힝야족 무장반군으로 알려진 일당의 미얀마 경찰 초소 습격 이후, 미얀마 정부군은 로힝야족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을 일삼아 국제사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사태로 현재까지 약 40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추정하고 있다.

사진출처=CNN

이슬람교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탄압해 유혈사태까지 일으킨 미얀마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 분노가 극으로 치달았다.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인 아웅 산 수지 여사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취소하라는 여론까지 거세지며 미얀마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라카인 지역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 소수민족이다.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부터 온 불법 이민자로 취급되며 끊임없는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

특히 지난 8월 25일 발발한 무력충돌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촉발시켰다. 로힝야족 무장반군으로 알려진 일당이 미얀마 경찰 초소를 습격하며 무력충돌이 발생했는데, 미얀마 정부군이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에 무분별한 폭력을 가해 현재까지 로힝야족 약 40만 명이 국경을 넘어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 및 노인 등 많은 난민들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다. 유엔난민기구는 신규 난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난민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13일(현지시간)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로힝야족 인공청소를 즉각 중단하라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에 대한 규탄 성명에 합의한 것은 9년 만의 일이다. 특히 그동안 미얀마 정권을 두둔하던 중국과 러시아도 성명 채택에 동참했다.

안보리는 "미얀마 정부군이 로힝야족에 대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법과 질서, 민간인 보호, 난민 문제 해결 등이 확보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CNN'에 따르면 12명의 말랄라 유사프자이 등 노벨상 수상자는 13일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사태를 끝내기 위해선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담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엔의 개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미얀마 정부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얀마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국경의 안전지대 설치' 제안을 14일 공식 거부했다. 저 타이 국가자문역실 대변인은 "안전지대가 설치되면 외부세력이 상황을 통제하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는 "로힝야족 난민을 우선 수용하고 돌보겠지만 결국 미얀마가 다시 데려가야한다"면서 "난민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양국 국경에 안전지대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미얀마 정부의 이러한 거부는 사실상 국제사회의 도움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로힝야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미얀마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인 아웅 산 수지 여사는 "로힝야족 인공청소 주장은 현실을 조작해 만든 '가짜 뉴스'"라는 발언들을 쏟아내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수지 여사는 로힝야족 난민 사태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유엔 총회에도 불참했지만, 외신들은 그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극우불교단체들의 행보는 '비뚤어진 불심'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동안 로힝야족 탄압에 앞장서며 종교 갈등을 조장한데 이어, 로힝야족 인공청소 문제가 대두된 후 줄곧 "국제사회는 미얀마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한편 아웅 산 수지 여사의 19일 대국민 국정연설을 계기로 미얀마 내분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틱낫한 스님, 2017 유니온 메달 수상

인권·평화 노력 인정받아… 9월 6일 시상식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틱낫한 스님<사진>이 세계 인권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유니온 메달을 수상했다.

유니온 메달은 1981년에 처음 만들어져 인권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계적 인물에게 수여된다. 인권·평화계서 가장 가치 있는 상이라고 손꼽히며, 역대 수상자로는 김대중 前 대통령, 넬슨 만델라 등이 있다.

'라이언스로어' 등 외신은 틱낫한 스님이 9월 6일(현지시간)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세계인권에 기여한 인물에 수여하는 유니온 메달을 수상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상은 플럼빌리지 대표 찬덕이 대리 수상했다.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출신의 승려이자 평화운동가다. 현재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6개의 수행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전쟁당시 평화캠페인을 벌여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스님들이 틱낫한 스님의 말을 자주 인용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유니온 신학대 총장 세린 존스는 "틱낫한 스님은 살아온 배경이나 신념 등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이라며 "스님이 그간 해온 인권과 평화를 위한 대대적 노력을 인정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박진형 수습기자

예수vs부처 '맞장' 게임, 결국 유통 금지

말레이시아서 신작 게임 '파이트 오브 갓' 판매 '안 돼'

지난 9월 4일 발매된 신작 게임 '파이트 오브 갓(Fight of Gods)'이 종교 갈등 조장 우려로 말레이시아에서 유통이 금지됐다.

말레이시아 언론 '더스타온라인' 등 외신은 9월 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 위원회(MCMC)가 파이트 오브 갓 개발사 측에 판매 금지를 공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파이트 오브 갓'은 게임유통 및 공급업체 스팀(Steam)이 개발한 2D 격투게임이다. 말 그대로 신들이 전쟁하는 게임으로, 방법은 인기 격투게임 '스트리트 파이터'와 유사하다. 이용자들은 부처·예수·모세 등의 종교적 지도자 또는 신들을 자신의 캐릭터로 선택, 전투 테마를 설정한 뒤 게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발매 전 트레일러 영상에서 예수와 부처가 격투를 벌이는 장면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종교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였다.

이에 말레이시아 MCMC는 개발사 측에 게임 판매 금지를 요청,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스팀(개발사)이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파이트 오브 갓의 접속이 차단될 것"이라면서 "이는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종교와 인종의 화합을 훼손하는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스팀(Steam)이 개발한 신작 게임 '파이트 오브 갓'이 종교 갈등 조장 우려로 말레이시아에서 유통이 금지됐다.

사진출처=유튜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佛心으로 성공

INC, "불심 통해 현혹되지 않고 현실 직시" 비결



세계 최고 투자가이자 경영자로 알려진 워런 버핏의 성공은 그의 불자(佛者)적 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미국 언론 'INC'는 8월 9일 "워런 버핏이 국제 정세에 동요치 않고 꾸준히 성공적인 행보를 걷는 것은 그의 마음챙김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외부 요소에 현혹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불교적 태도와 늘 차분한 태도를 유지케 해준 마음챙김 덕분이라는 것.

불교는 갈애(渴愛: 오욕에 집착하는 것)를 버리라고 한다. 갈애를 버리면 좋든 나쁘든, 상냥하든 심술궂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교는 집착하는 대신 '지금 여기' 집중하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이다. 단,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의 것들을 중요시하되 나의 주관을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불교의 속성이 워런 버핏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버핏은 과거에 매달리거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중시한다고 알려진다. 눈에 보이는 돈벌이에 집착하지 않는다며 한때 재계에서 '차분한 짠돌이'로 불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INC'는 "그의 성공은 안정된 마음가짐이 밑바탕이 되었는데 이는 불교서 기인했다"며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했다.

버핏은 이렇듯 불교의 기본 철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순간의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과거의 실수로 현재의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필요에 따라 접근을 조정하고 더 나은 방향에 집중했다고 'INC'는 설명한다.

특히 버핏이 투자에 실패했을 때 불심은 더욱 빛을 발했다. 버킷은 소매유통 분야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Hochschild, Konh&Co'라는 볼티모어의 백화점을 인수했지만 인접지역 4개 백화점간의 경쟁으로 수익이 악화됐다. 결국 버핏은 미련 없이 이를 매각하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 더욱 과감한 투자를 진행, 결론적으로는 흑자를 남겼다.

'INC'는 "버핏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는 불교와 맞닿아 있는 그의 사업 철학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그는 누군가를 뛰어 넘는데 전혀 열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그는 종합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데 집중했다. 이는 마음챙김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박진형 수습기자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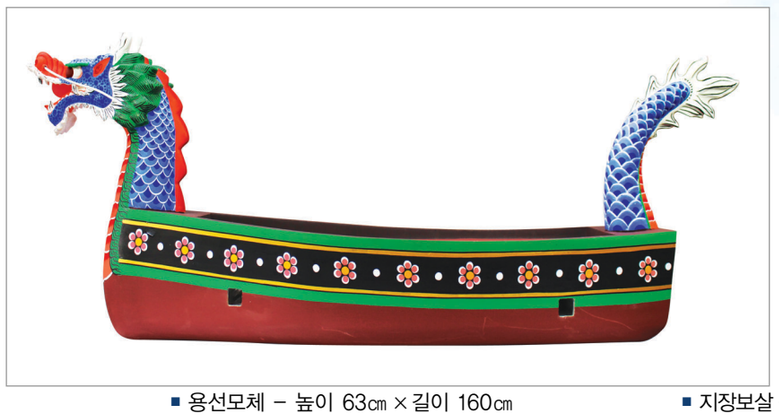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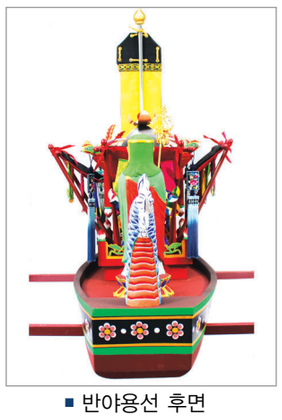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